

先天 天觀과 上帝의 超越性

- 上帝의 神道, 三界大權과 關聯하여 -

高南植*

目次

I. 緒言	IV. 超越性的 發顯인 三界大權
II. 三界(天界 地界 人界)	(「權能,濟生」編 中心)
III. 超越性 發顯의 一原理인 神道	1. 天界大權 2. 地界大權 3. 人界大權
	V. 結語

I. 緒言

구천상제(강증산 1871-1909, 이하 상제로 칭함)의 삼계대권(三界大權)은 초월적 능력의 표현이다. 이러한 초월성 속에서 신앙의 체계가 세워지고 신도 계층이 형성된다.

대순신앙에서 신도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져야될 믿음의 내용은 신조(信條)이고 사강령(四綱領)과 삼요체(三要諦)로 되어 있다. 사강령은 신앙 수행자인 인간이 안심(安心)과 안신(安身)을 이루어 초월적 존재의 권능과 말씀에 대해 공경하고 따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순진리회 요람은 사강령에 속하는 경천(敬天)에 대해 『모든 행동(行動)에 조심(操心)하여 상제님(上帝任) 받드는 마음을 자나깨나 잊지 말고 항상 상제께서 가까이 계심을 마음 속에 새겨 두고 공경(恭敬)하고 정성(精誠)을 다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 하였고 수도(修道)에 관해 『마음과

* 대전대학교 대순종학과 교수

몸을 침착(沈着)하고 잠심(潛心)하여 상제님(上帝任)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정신을 모아서 단전(丹田)에 연마(鍊磨)하여 영통(靈通)의 통일을 목적으로 공경(恭敬)하고 정성(精誠)을 다하는 일념(一念)을 스스로 생각하여 끊임없이 잊지 않고 지성(至誠)으로 봉축(奉祝)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결국 상제에 대한 귀일과 일심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그 바탕은 하늘만이 아니라 천계 지계 인계의 삼계를 모두 권능으로 운용하는 상제의 삼계대권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주지의 사실로 사강령은 삼요체인 성경신(誠敬信)과 함께 신조의 한 부분이고, 그 내용은 안심 안신 경천 수도이며 크게 두가지 체계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인간 심신과 천 그리고 도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 수행자의 안(安)과 경(敬)과 수(修)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 안심 안신의 안과 경천의 경의 관계는 인간적 차원에서 자신의 상태를 안(安)으로 만들어 나가 초월적 대상에 대해 외경(畏敬)의 신심(信心)을 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필자는 이미 안심 안신에 대한 논문에서 안의 의미를 상제에 대한 일심, 천륜에의 귀착, 상생대도의 실천이라는 내용으로 살펴본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행 연구는 안심 안신 경천 수도의 일련의 구조와 안과 경의 관계를 볼 때 경천을 해석하는 데 연관성을 갖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대순진리회 요람의 경천과 수도부분의 정의에 입각 지난호에서 사강령의 한 부분으로 기술된 바 있는 안의 방향성에서 상제에 대한 일심이라는 항목과 연관하여 경(敬)의 궁극적 대상이 상제라는 점을 고찰한 것이다.

아울러 이 글은 내용상 전개에 있어 크게 상제의 초월성에서 나타난 삼계 운용으로서의 신도와 그에 따른 삼계대권의 실례를 알아보는 두가지 면에서 『전경』의 권능, 제생편을 중심으로 서술되었음을 밝혀둔다.

Ⅱ.三界 (天界, 地界, 人界)

중국 고대민족의 민족신앙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천, 즉 상제에 대한 신

앙이다. 사람은 모두 천(상제)으로부터 태어났다고 하는 신앙, 다시 말하여 인간의 조상은 천이라고 믿는 신앙이 곧 중국고대의 민족신앙이었다.(安炳周,1987:25) 천은 주재적 종교심리론적 천, 자연적 기계론적 천, 이법적 철학적 천으로 설명된다. (金能根,1988:113-115)

중국적 천사상이 확립된 것은, 춘추전국시대라는 사상적 여과기간을 거쳐서 중국의 고전사상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시점 이후에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에 대한 사상이 생겼으며, 이 사상이 한국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3재사상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심원적(同心圓的)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늘, 즉 천은 인간의 외적존재가 아니라 동심원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민족의 천사상은 복합적이어서 그 특성을 한마디로 집어내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은 천을 하늘님으로 불러왔다.(尹以欽,1991:168-169)

대순사상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천개념을 포함해 지계 인계를 종합한 우주적 차원으로서 삼계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그것은 천지인과 긴밀한 관계인 신계까지 내포한 의미이다.

천지인 삼계(三界)에서 천(天)을 보면 천에 있어 구천(九天)이 나타나며 천은 36천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구천은 상제가 삼라만상을 주재(主宰)하는 곳으로 신성 불 보살들이 삼계의 혼란을 해결하지 못해 하소연한 최고위(最高位)이다.

하늘은 삼십육천이 있어 상제께서 통솔하시며 전기를 맡으셔서 천지 만물을 지배 자양하시니 뇌성보화천존상제(雷聲普化天尊上帝)이시니라.(교운 2장 55절)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겁액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교운 1장 9절)

중천과 황천의 천은 인간계 자손의 유무와 관련하여 인계에 살았던 신(神)이 거하는 곳이고 태을천(太乙天)은 태을주(太乙呪)에 나타나는 태을천상원군(太乙天上元君)이 주재하는 곳으로 설명된다.

중천신은 후사를 못둔 신명이니라. 그러므로 중천신은 의탁할 곳을 두지 못하여 황천신으로부터 물과 밥을 얻어먹고 왔기에 원한을 품고 있었느니라. 이제 그 신이 나에게 하소연 하므로 이로부터는 중천신에게 복을 주어 원한을 없게 하려하노라.(공사 1장 29절)

오는 잠을 적게 자고 태을주를 많이 읽으라. 그것이 하늘에서 으뜸가는 임금이니라. 오만년 동안 동리 동리 각 학교마다 외우리라(교운 1장 60절)

천의 작용은 선천(先天)에서 만물이 시비에 따라 존재하여 노천(老天), 명천(明天)등으로 나누어wu 각각의 속성을 갖고 나타났다.

하늘도 노천(老天)과 명천(明天)의 시비가 있으며 땅도 후박의 시비가 있고 날도 수한의 시비가 있으며 바람도 순역의 시비가 있고 때도 한서의 시비가 있으나 오직 성수는 시비와 상극이 없나니라” 하셨도다.(교법 3장 6절)

이에 따라 선천에서 묵은 하늘로 표현되는 하늘은 인간들의 삶에 여러 가지로 심각한 피해를 끼치게 된다.

상제께서 어느날 종도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묵은 하늘은 사람을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었도다. 이후에 일용 백물이 모두 핏절하여 살아 나갈 수 없게 되리니 이제 뜯어고치지 못하면 안되느니라” 하시고 사흘 동안 공사를 보셨도다. 상제께서 공사를 끝내시고 가라사대 “간신히 연명은 되어 나가게 하였으되 장정은 배를 채우지 못하여 배 고프다는 소리가 구천에 달하리라” 하셨도다.(공사 1장 11절)

세속에 전하여 내려온 모든 의식과 허례를 그르게 여겨 말씀하시길 “이는 묵은 하늘이 그르게 꾸민 것이니 장차 진법이 나리라” 하셨도다.(교법 1장 38절)

이러한 선천에 존재해온 묵은 하늘의 심각한 피해는 상제와 박공우의 살을 원하는 부분에서 잘 나타나 있다. 상제는 묵은 하늘에 대한 해원공사를 처결해 그 폐단을 없앴다.

상제께서 와룡리 신 경수의 집에서 공우에게 “너의 삶과 나의 삶을 떼어서 쓸데가 있으니 너의 뜻이 어떠하뇨”고 물으시기에 그가 대하여 말하기를 “쓸 곳이 있으시면 쓰시옵소서” 하였도다. 그후에 살을 떼어 쓰

신 일은 없으되 다음날부터 공우가 심히 수척하여 지는도다. 공우가 묻기에 “살을 떼어 쓰신다는 말씀만 계시고 행하지 않으셨으나 그후로부터 상제와 제가 수척하여 지오니 무슨 까닭이 오니까.” 상제께서 “살은 이미 떼어 썼느니라. 묵은 하늘이 두 사람의 살을 쓰려하기에 만일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배운이 되므로 허락한 것이로다”고 일러주셨도다.(공사 3장 13절)

천사상은 상고대의 거의 모든 민족의 종교경험속에서 발견된다. 하늘신이 남성신(男性神)인 데 반하여 농경생활에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지모신은 여성신으로 나타난다. 천신과 지신은 거의 모든 경우에 동시에 발견된다. 천신과 지신, 남성신과 여성신이 동시에 기능하는 시대의 문화단계에는 기복(祈福)이 종교사상의 중요한 요소로 나타난다. 고전사상이 싹트면서 지모신은 점점 그 위력을 상실하고, 반대로 천신인 지고신(至高神)이 우주의 주재신이 되며, 우주의 주재신에 대한 의례를 통하여 점점 우주론과 형이상학 체계가 형성된다.(尹以欽,1991:168)

이처럼 후대에 오면서 천신과 지신 혹은 천과 지의 관계에서 천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하(卑下)된 격위에 있던 지(地)가, 천지공사를 통해 천과 대등한 위치에 있게 된다. 그리고 땅 자체에도 해원으로 기운이 통일됨으로써 지계(地界)의 전체적인 균등성이 만들어 진다.

선천에는 하늘만 높이고 땅은 높이지 아니하였으되 이것은 지덕(地德)이 큰것을 모름이라. 이 뒤로는 하늘과 땅이 일체로 받아들여야 하느니라.(교법 1장 62절)

이제 해원시대를 맞이하였으니 땅도 버림을 받던 땅에 기운이 돌아오리라.(교법 1장 67절)

다음으로 삼계에서 인의 위상은 어떠한가. 먼저 인간은 60년간 선령신의 공덕으로 태어나고, 인간의 죽음시 천상에 오르는 일은 도를 닦아 정혼이 뭉쳐져 이루어지는 것이다.

도를 닦은 자는 그 정혼이 굳게 뭉치기에 죽어도 흩어지지 않고 천상에 오르려니와 그렇지 못한 자는 그 정혼이 희미하여 연기와 물거품이 삭듯 하리라.(교법2장 22절)

해원시대에 신계 선령신(仙靈神)은 인간의 일생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끼쳐 척신으로부터 보호해 수도케하는 역할을 한다.

이제 각 선령신들이 해원시대를 맞이하여 그 선자 선손을 척신의 손에서 빼내어 덜미를 쳐 내세우나니 힘써 닦을지어다.(교법 2장 14절)

인간을 이루는 구령삼정(九靈三精)에 있어 구령은 천(天)의 구성(九星)과 삼정은 하늘의 삼태성(三台星)과 깊은 관련을 맺고 천인위일(天人爲一)하에 성령불이(星靈不二)로 작용한다. 이것은 인간을 이루는 영(靈)과 정(精)의 근원이 별의 작용에 긴밀히 연계됨을 보여준다.

하늘에 탐랑, 거문, 녹존, 문곡, 염정, 무곡, 파군, 좌보, 우필 9개의 별이 있다. 인간에게는 천생이라는 무령, 현주, 정중, 절단, 뇌뇌, 단원, 태령, 영동의 9령이 있다. 하늘에는 허정, 육순, 곡생 삼태가 있고, 인간에게는 태광, 상령, 유정 삼정이 있다. 하늘과 인간은 하나가 된다. 별과 영혼은 떨어져 있지 않다. 서로 인간을따라서 내몸을 수호해 준다. 위에서는 비취주고 아래서는 응한다.(天有貪狼 巨文 祿存 文曲 廉貞 武曲 破軍 左輔 右弼 九星 人有 天生 巫鈴 玄珠 定中 子丹 雷雷 丹元 太靈 靈童 九靈 天有 虛精 六淳 曲生 三台 人有 太光 爽靈 幽精 三精 天人爲一 星靈不二 相隨人間 守護吾身 上照下應) (교운2-42)

또 인간 육신(肉身)의 오장(五臟)은 우주의 기운인 오행(五行)과 연관돼 있다. 도교의학의 해부학이라고 할만한 것 중에 신신(身神)이 있다. 이미 『태평경(太平經)』에 오장신(五臟神)이 있다는 것을 말하였으나 오장신(五臟神)에 관해서는 『등진은결』, 『황정경내경』, 『사기섭생도』 등에 보인다.(都光淳.1990:132)

목은 간 가운데 푸른 기운이, 기가 좌편을 따라서 거둬하여 나와서 된 것이다. 화기운은 심장가운데 적색기운이, 그 기가 전면으로 따라나와 된 것이다. 금 기운은 폐 가운데 백색기운이, 기가 우측편으로 쫓아나와 거둬나와 된 것이다. 수는 심장가운데 있는 흑색기운이 등위로 가둬나와서 된 것이다. 토기운은 비장 가운데 있는 황색기운이 이마위로 거둬나와서 된 것이다.(木 肝中青氣 氣從左便 重出化爲 火 心中赤氣 氣從前面 重出化爲 金 肝中白氣 氣從右便 重出化爲 水 腎中黑氣 氣從背上 重出化爲 土 脾中黃氣 氣從額上 重出化爲)(교운 2장42절)

인간은 혼(魂)과 백(魄)으로 되어 있고 혼과 백은 각각 하늘에서는 신, 선,

령(神,靈,仙)의 형태로 땅에서는 귀(鬼)로 변해 신계(神界)와 연계된다.

김송환이 사후 일을 여쭙어 물으니 상제께서 가라사대 “사람에게 혼과 백이 있나니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후손들의 제사를 받다가 四代를 넘긴 후로 영도 되고 선도 되니라. 백은 땅으로 돌아가서 사대가 지나면 귀가 되니라” 하셨도다.(교법 1장 50절)

다음으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보기로 한다. 천지(天地)의 중앙(中央)으로서 인간 마음은 천지(天地)보다 크고 인간의 마음은

하늘이 쓰는 것과 땅이 쓰는 것, 그리고 사람이 쓰는 것이 모두 마음에서 통제된다. 마음은 귀신이 작용하는 중요 기관이고, 문호이며, 도로이다. 추기를 열고 닫고, 문호를 들고나며, 도로를 오고 가는 신이 혹은 선하기도 하고, 혹은 악하기도 하니 선한 것은 스승으로 본받고, 악한 것은 고쳐라. 내 마음의 추기, 문호, 도로는 천지보다 더 크다.(天用地用人 統在於心 心也者 鬼神之樞機也 門戶也 道路也 開閉樞機 出入門戶 往來道路神 惑有善 惑有惡 善者 師之 惡者 改之 吾心之樞機門戶道路 大於天地)(행록3장 44절)

라는 내용처럼 천지인 삼계(天·地·人 三界)의 신(神)들을 통제할수 있으며 천지인신(天·地·人·神)에 있어 삼계의 주체적 중심으로 존재한다.

마음에 있어 「포유문(布諭文)」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심령(心靈)이고 심령을 찾는 것이 인간 삶의 지극한 보배가 됨을 강조하고 있다.

말하기를 사람이 살아 세상에 처하여 오직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오직 명예이고 오직 영화이다. 명예라고 말하고 영화라고 말하여 사람이면 누구나 다 구하고자 하는 바이나 그것을 구하고자하나 어려운 까닭은 무엇인가? 모름지기 그 까닭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름길을 알지 못해서이니 지름길은 다른데서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 곳은 무량하고 지극한 보배에 있다. 지극한 보배는 곧 나의 심령이다. 심령을 통한 즉 귀신과도 수작할 수 있고 만물과도 질서를 갖출 수 있다.(曰人生處世惟何所欲 惟名惟榮 曰名曰榮 人所共欲而求之難得 是何故也 都是無他 未如捷徑 捷徑非他求也 吾之所求 有無量至寶 至寶即吾之心靈也 心靈通則鬼神可與酬酢 萬物可與俱序)(교운 2장 41절)

특히 위에서 「심령통 즉귀신가여수작 만물가여구서(心靈通 則鬼神可與酬

酢 萬物可與俱序)」라는 내용은 인간 마음의 닦여진 경지에 따라 신과 통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상태를 보여준다.

또한 마음은 도통과 관계되는데 다음 전경 구절은 『서전(書傳)』 서문(序文)의 내용이 마음과 관계됨을 보여준다.

서전서문(書傳 序文)을 많이 읽으면 도에 통하고 대학상장(大學 上章)을 되풀이 읽으면 활연 관통한다(교법 2장 26절)

『서전(書傳)』 서문(序文)의 내용은 마음의 근원이 도에 따라야되며 그 마음의 법으로 「정일집중(精一執中)」과 「건중건극(建中建極)」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삼황(二帝三皇)의 정치(政治)는 「도(道)」에 근본하고 「이제삼황(二帝三皇)의 도」는 「마음」에 근본을 두었으니 그 「마음」만 깨달으면, 그 「도(道)」와 「정치(政治)」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리라. 왜 그런가 하면, 「정일집중(精一執中)」은 요순우(堯·舜·禹)가 주고 받은 「심법(心法)」이요, 「건중건극(建中建極)」은 상탕(商湯)·주무(周武)가 서로 전한 「심법(心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덕(德)」이니, 「인(仁)」이니, 「경(敬)」이니, 「성(誠)」이니 하는 것은 말은 비록 다르지만 실상 그 이치는 하나이니, 그것은 모두 이 마음의 묘한 바탕을 밝히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천(天)을 말함에 있어서는 그 마음의 유래한 바를 엄숙하게 함이요, 민(民)을 말함에 있어서는 그 마음을 베푸는 대상에 대해서 삼가게 함이니(二帝三王之治 本於道 二帝三王之道 本於心 得其心 則道與治 固可得而言矣 何者 精一執中 堯舜禹相授之心法也. 建中建極 商湯周武相傳之心法也 曰德 曰仁 曰敬 曰誠 言雖 殊而理則 一 無非所以明此心之妙也. 至於言天則嚴其心之所自出 言民則謹其心之所由施)

한편 『대학』 상장(大學 上章)의 내용은 대인이 되기위해서는 명명덕(明明德), 신민(新民), 지어지선(止於至善)과 성의(誠意) 정심(正心)의 마음가짐으로부터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로 나아가는 일련의 생활자세를 밝히고 있다.

대학의 도는 명덕을 밝히고 백성을 새롭게하며 지극한 선에 이르는데 있다. 그 칠곳을 안연후에 정함이 있고 정함이 있는 연후에 능히 고요해지고 고요한이후에 능히 안하며 안한이후에 능히 사려가 있고 사려가 있는 연후에 능히 터득함이 있다. 물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고 일에는 처음

과 마침이 있다. 선후를 안다면 도에 가깝다. 옛날에 천하에 덕을 펴고 자하는 자는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가정을 다스리며 그 가정을 다스리려는 자는 먼저 몸을 닦고 그 몸을 닦고자하는 자는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하며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자하는 자는 먼저 그 의지를 다스린다 하였다, 앎을 지극히 하는 것은 물상들을 격하는데 있다.(중략)그 두터히 할바에 얹게 하고 그 얹게 할 바에 두터히 할자는 없다.(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至於至善 知止以後有定 定以後能靜 靜以後能安 安以後能慮 慮以後能得 物有本末 事有終始 知所先後 卽近道矣 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 先治其國 欲治其國者 先齊其家 欲齊其家者 先修其身 欲修其身者 先正其心 欲正其心者 先誠其意 欲誠其意者 先治其志 致知在格物 (중략) 其所厚者 薄 其所薄者 厚 未之有也)

위의 내용은 인간이 마음과 몸을 수양해 천하로 확대시키는 삶속에서 삼계의 질서를 넓고 밝게 터득하는 이치를 보여준다.

천지인(天地人) 삼계(三界)관계를 종합해 볼때 천지인 삼계는 각각 용사(用事)를 하는 차원에 있으며 인(人)은 신(神)과 마음을 매개로 천지(天地)는 인(人)과 기(氣)로 유기적 연관성속에 존재한다.

하늘이 우로를 박하게 쓰면 반드시 만방에 원한이 있고 땅이 수토를 박하게 쓰면 반드시 만물에 원한이 있고 사람이 덕화를 박하게 쓰면 반드시 만사에 원한이 있다. 하늘이 쓰는 것과 땅이 쓰는 것, 그리고 사람이 쓰는 것이 모두 마음에서 통제된다. 마음은 귀신이 작용하는 중요 기관이고, 문호이며, 도로이다. 추기를 열고 닫고, 문호를 들고나며, 도로를 오고 가는 신이 혹은 선하기도 하고, 혹은 악하기도 하니 선한 것은 스승으로 본받고, 악한 것은 고쳐라. 내 마음의 추기, 문호, 도로는 천지보다 더 크다.(天用雨露之薄 則必有萬方之怨 地用水土之薄 則必有萬物之怨 人用德化之薄 則必有萬事之怨 天用地用人用 統在於心 心也者 鬼神之樞機也 門戶也 道路也 開閉樞機 出入門戶 往來道路神 惑有善 惑有惡 善者師之 惡者 改之 吾心之樞機門戶道路 大於天地)(행록3장 44절)

천지인 각각에 있어 요구되는 올바른 관계는 천지인이 원(怨)이 없게 작용하는 것이며 천지인중 인간이 중심의 위치에 있고 나아가 인간 마음으로 모든 곳이 통제될 수 있는 것이다.(행록 3장 44절) 여기에서 마음이 삼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의식색(衣食色)의 도에 이르러 각각 천지의 기를 받는다. 혹세무민하는 사람과 남을 속여 물건을 취하는 자도 역시 천지의 기를 받는다. 일이라는 것은 마땅히 그 왕성함이 천지에 있다. 반드시 인간에게 있지 않다. 그러나 인간이 없으면 천지도 없다. 그러므로 천지가 사람을 낳아 사람을 쓴다. 인간으로 태어나 천지가 사람을 쓰는 때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찌 가히 인간의 삶이라 할 수 있는가(至於衣食色之道 各受天地之氣也 惑世誣民者 欺人取物者 亦受天地之氣也 事之當旺在於天地 必不在人 然無人 無天地 故 天地生人 用人 以人生 不參於天地用人之時 何可曰人生乎(교법 3장 47절)

위에서 「일이 마땅히 천지에 있지 반드시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점과 천지가 인간을 낳아 쓰는 본질을 알아 인간은 천지가 사람을 쓰는 때를 맞아 주체적 각성으로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든 일이 천지의 작용아래 진행됨을 보여준다.(교법 3장 47절)

또 『전경』에 천지(天地)와 인(人)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천지생인(天地生人)아래 인(人:자손)은 신계 선령신들의 60년동안의 공(功)과 관련돼 있다. 이것은 천(天), 선령신(仙靈神), 자손(子孫)이 연관된 경우이다.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르치시를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헤아릴 수 없는 공력을 들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선령신들은 육십년 동안 공에 공을 쌓아 쓸만한 자손 하나를 타 내되 그렇게 공을 드러도 자손 하나를 얻지 못하는 선령신들도 많으니라. 이 같이 공을 드러 어렵게 태어난 것을 생각할 때 꿈같은 한 세상을 어찌 잠시인들 헛되게 보내리오” 하셨다.(교법 2장 36절)

또한 천은 인에게 임무를 내리고 마음과 몸 그리고 하는 일을 어렵게 해 시련속에서 인의 능력을 키우게 하기도 한다.(행록 3장 50절) 이러한 천의 인에 대한 작용에서 천도(天道)속에 인계 탕(湯)의 선(善)과 걸(桀)의 악(惡)이 있었고, 인간 각자(各自)가 천지(天地)의 기(氣)를 받아 삶이 이루어진다. 또 인계(人界) 지자(智者)중 대지(大智)를 소유한 자는 천지(天地)와 같은 것으로 표현되어 춘하추동(春夏秋冬)의 기(氣)를 소유해 만사를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공사 3장 39절, 제생43절)

한편 인세(人世)의 선(仙)의 포태(胞胎), 불(佛)의 양생(養生), 유(儒)의 욕대(浴帶)와 후천에 새로이 출현될 관왕(冠旺)이 각각 천지의 허무(虛無), 적멸(寂滅), 이조(以詔), 도술의 기(氣)를 따라 있게 된다.(교운 1-66, 玄武經)

또한 천지와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의 선악과 능력 그리고 인세(人世) 도법(道法)의 출현등이 천지와 관련돼 있으며, 천과 지는 원형이정(元亨利貞)으로 도(道)를 삼아 천지 상호간에는 안(安)과 화(和)로 작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관계이다.(교운 2장 42절)

이러한 질서속에 후천 삼계관계에서 선천과 다른 점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인존(人尊), 성사재인(成事在人), 도통군자(道通君子)이다.

상제는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교법 2장 56절)고 하여 천지공사를 따라 삼계에 인존시대가 열림을 밝혔다.

인존(人尊)은 천지보다 인간이 더 존귀하다는 것으로 천지인 삼계관계에서 인의 위상이 더 격상되는 시대가 열림을 보인 것이다.

천과 지를 높이던 선천시대가 있었다면 시운이 변해 후천에는 인존시대가 되어 인간이 천지보다 존귀하며 이것은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을 더 높이는 것이 된다.

성사재인(成事在人)에 있어서는 『「선천에는 모사(謀事)가 재인(在人)하고 성사(成事)는 재천(在天)이라」 하였으되 이제는 모사는 재천하고 성사는 재인이니라』(교법 3장 35절)는 내용의 말처럼 선천에 천(天)이 일을 이루던 상황에서 인간이 일을 이루는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성사가 인간에게 있다는 면에서 후천 인존시대 천인(天, 人)관계에서 천이 일을 성공시켜오던 성사재천(成事在天)의 선천과는 정반대의 상황아래 삼계 운영의 주도층이 인간중심으로 전환되어 인간이 성사(成事)하는 성사재인(成事在人)이 된다

그리고 성사재인(成事在人)은 『도(道)는 장차 금강산 일만 이천봉을 응기하여 일만 이천의 도통군자로 참성하리라』(예시 45절)는 내용처럼 앞으로 인계에서 출현할 도통군자(道通君子)를 정점(頂點)으로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인존시대(人尊時代) 도통(道通)의 연원적(淵源的) 맥(脈)은 상제(上帝)이고 대두목을 통해 도통줄이 전해진다.

도통(道通)을 상제가 홀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선령신(先靈神), 유불선도통신(道通神)등 삼계 중추적 신과 관련을 맺는다.(高南植.1997:457-458) 이

것은 후천에서 인의 위상이 천지보다 높다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인계 도통군자가 신계 신의 영향하에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도통에 있어 인간의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도통하는 방법에 따라 심신(心身)을 닦는 것이다.(교운1장 33,34,41절)

도통군자의 차원은 인간이 마음을 닦아 도통을 용사하는 차원은 만사를 임의로 행하는 상등, 용사에 제한이 있는 중등 그리고 알기만 하고 용사를 뜻대로 못하여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하는 하등의 세등급이며(교운 1-34) 상, 중, 하(上·中·下)의 차이는 마음과 신의 관계가 중추가 된다.(교법2-17)

결국 선후천 교체기 천지성공의 시운속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면에서 우주적 차원의 체계질서의 변화속에 인간존귀의 장이 창출된다.(高南植.1998:24)

Ⅲ. 超越性 發顯의 一原理인 神道

우리 민족의 천사상은 복합적이어서 세계 종교사에 나타나는 주도적인 유형의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않는다. 가까이서 중국의 강력한 영향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고대 지고신의 전통을 굳건히 지니고 있다. 이는 우리 민족이 특정한 고전문화 전통의 틀에 완전히 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천사상의 특성은 그 통합성에 있다. 아득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우리 민족의 동질성과, 우리 민족의 삶과 역사의 터전을 보유했을 수 있는 것이라면 어느 것이든 수용하여 조화를 이루었다. 그 조화의 징표는 그 사상의 조립에 있지 않고, 아득한 상고대의 지고신(至高神)에 대한 신앙에서 보인다.(尹以欽,1991:171)

다산은 천(天)이라는 말이 상제와 같이 쓰이는 용어라고 말한다. 여기서 ‘천의 주재자가 상제이다’ 라는 말에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다산이 상제의 의미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상제는 ‘천(天)의 주재자(主宰者)’ 이면서, 동시에 천은 상제의 별칭도 된다. 그런데 고대 문헌에서는 상제라는 말 이외에도 황천(皇天), 호천(昊天), 상천(上天) 등의 호칭으로도 많이 쓰였다. 이러한 개념들은 모두 다 천을 하나의 인격적(人格的) 주재자

(主宰者)로 보는 것이다. 다산은 하늘의 본 이름(正名)은 '상제(上帝)' 라 한다. '천(天)' 은 상제(上帝)가 있는 자리로서 상제를 가리키는 이름이 된다고 한다. (琴章泰, 1993:121-122)

성리학적 하늘 개념의 갈래들 가운데 정약용 철학에서 살아 남은 것은 우주만물의 창조주, 생사화복의 주관자, 개별자로서의 물리적 존재의 의미이다. 이중 푸른하늘은 위대한 영명(靈明)으로서의 하늘에 대한 간접적 상징적 호칭으로서만 존재론적 의미를 지닌다.요컨대 성리학적 리와 일치하는 존재 법칙이나 당위법칙으로서의 하늘은 철저히 부정된다.(유초하,1998:177)

이러한 지고신의 개념과 다산에게서 나타나는 상제의 개념이, 대순사상에서는 천을 포함한 우주를 삼계대권으로 주재해 삼계공사(천지공사)를 통해 기존 선천문제의 해결과 후천선경(後天仙境)이라는 이상세계를 열어준 신앙 대상인 상제에게서 찾고 있다.

증산(상제)의 인격천이 지니는 위격은 최고신 상제로서 다양한 신들간의 관계속에 제신을 거느리는 자리에 있으며, 인간사회의 문제를 제시하고 그 자신의 권능으로서 인세에 강세하여 전체인류를 위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신이라 할 수 있다.(李京源,1998:128)

그 점을 이제 상제의 신도(神道)와 삼계대권(三界大權)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천지공사가 근본적으로 어떠한 원리로서 이루어지는가에 주목할 때 우리는 그 해답을 상제가 밝힌 다음의 신도(神道)¹⁾에서 찾을 수 있다.

상제의 신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연계돼 주창되었다.

첫째 신성 불 보살들의 하소연으로 구천상제는 삼계를 대순(大巡)했고 삼계 혼란의 요인이 서양 과학물질문명의 세계적 전파속에 그 문명이 물질에 치우쳐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천리를 흔들며 자연을 정복하려는 면에서

1) 神과 神道에 대해 神謂事理玄妙, 神奇. 易繫辭上: “陰陽不測之謂神.”注:“神也者, 變化之極, 妙萬物而爲言, 不可形言者也.<「辭源」1231쪽 > 神道: (易, 觀) 觀天之神道, 而四時不忒, 聖人以神道設教, 而天下服矣. (疏) 神道者, 微妙無方, 理不可知. 目不可見, 不知所以然, 謂之神道<「大漢和辭典」卷 8, 455쪽>라고 나와 있다.

이것은 <神道로써 크고 작은 일을 다스리면 현묘 불칙한 공이 이룩되나니>(예시 73절) 라고 밝힌 부분에서의 神道와 神 事理玄妙, 神道者 微妙無方과 의미적으로 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모든 죄악을 저질러 신도(神道)의 권위를 떨어뜨린 것에 있다고 하였다.여기에서 신도의 권위 회복이 필요함을 볼 수 있다.(高南植.1992:238)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딴 것이라” 이르시고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神道)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겁역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 (교운 1-9)

둘째로 상극(相克)과 원(冤)으로 생긴 선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삼계공사이며 삼계공사의 근본원리가 신도(神道)에 있다.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神道)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공사 1-3)

셋째 천하일가의 형세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유불선 도법에 의해 다양하고 복잡한 미래세계를 대응해 우주적 질서를 세울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구천상제는 유불선 법술의 한계상황을 극복해 제생의세와 화민정세 할 수 있는 원리가 현묘불칙(玄妙不則)한 공을 이루는 신도의 무위이화(無爲而化) 작용에 있음을 밝혔다.

신도(神道)로써 크고 작은 일을 다스리면 현묘 불칙한 공이 이룩되나니 이것이 곧 무위화니라. 신도를 바로잡아 모든 일을 도의에 맞추어서 한량없는 선경의 운수를 정하리니 제 도수가 돌아드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지나간 임진란을 최풍헌(崔風憲)이 말았으면 사흘에 불과하고, 진묵(震默)이 당하였으면 석달이 넘지 않고, 송구봉(宋龜峰)이 말았으면 여덟달에 평안하였으리라. 이것은 다만 선, 불, 유의 법술이 다른 까닭이 아니라. 옛적에는 판이 좁고 일이 간단하므로 한가지만 써도 능히 광란을 바로 잡을 수 있었으되 오늘날은 동서가 교류하여 판이 넓어지고 일이 복잡하여져서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능히 바로 잡지 못하리라.(예시 61절)

위에서 선후천 교체기에 있어 상극으로 야기된 원(冤)의 해소(解消), 상도(常道)의 회복(回復), 우주차원(宇宙次元)의 도법(道法)의 필요성(必要性)등에 신도가 천지공사의 근본 원리(原理)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천지공사란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행하여진 신명계와 인간계, 그리고 자연계의 기존 운행질서를 새롭게 개편하는 작업을 말한다.

또 도통진경(道通眞境)의 후천(後天) 천하일가(天下一家)에서 모든 통일된 문화의 구현을 이루는 천지공사는 신도(神道)의 원리하에 도통신(道通神), 문명신(文明神), 명부(冥府) 주장신(主張神)등 신계 중추적 위치의 신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본래 상도(常道)로 있었던 신도의 권위추락(교운1-9)을 해원(解冤)으로 회복시켜(공사1장 3절) 후천의 신계질서로 조정해 새로운 도수에 따라 평천하(平天下)하는 것이다.

신도(神道)공사란 원한을 품고 죽은 신명들의 원한을 제거해 줌으로써 신명계의 평화와 그에 따른 인간계의 평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해원공사(解冤公事)> 와, 신명계에서 갈등을 나타내는 신명들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들을 새롭게 배치하는 <신명의 배치> 그리고 각 지방과 민족 및 문명에 따라 서로 이질성을 나타내는 신명들을 통일시키는 <통일신단의 구성> 등을 포함한다.(盧吉明.1994 改正增補版:433,435)

먼저 신계(神界)와 인계(人界)의 질서를 포함하는 신도(神道)는 신(神:신명)의 도로서 『천지에 신명이 가득차 있으니 비록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를 것이며 흙 바른벽이라도 신이 옮겨가면 무너지나니라.』(교법 3장 2절), 『천지(天地), 일월(日月), 성신(星辰)등을 각각 망량(魍魎), 조왕(竈王), 칠성(七星)의 신이 주장(主張)한다』(교운1장 44절)는 내용처럼 신계(神界)만이 아니라 천계, 지계, 인계로 구분되는 삼계와 유기적 관계이다.

또 상제가 신계 기구인 명부착란이 온 세상 착란이라하고 명부를 바로 잡아 세상의 착란을 해결하고자 한 것은 천지공사의 근본적 원리를 나타낸 것으로 명부에서의 질서 즉 신계의 도,신도가 바르게 되는 것이 인계문제 해결의 시원(始原)이 됨을 보인 것이다.

천지공사(天地公事)는 천지인 삼계를 도수(度數)에 따라 원리적으로 통제해 기존 선천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주를 구원해 후천선경(後天仙境)을 만

드는 것으로(공사 1장 3절) 상제가 단행한 다양한 천지공사에서 찾을 수 있는 보편적 공통점은 신계 신들과 함께 천지공사가 단행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신과 관련된 신도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귀신은 진리에 지극하니 귀신과 함께 천지공사를 판단하노라” (교운 1장 19절)

상제께서 계묘년 정월에 날마다 백지 두 서너장에 글을 쓰거나 또는 그림(符)을 그려 손이나 무우에 먹물을 묻혀 그것들에 찍고 불사르셨도다. 그 뜻을 종도들이 여쭙어 물으니 “그것은 천지공사에 신명을 부르는 부호이니라”고 알려주셨도다.(공사 1장 10절)

다음으로 신도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할 때 그 해답의 단서를 상제의 천지공사속에서 나타나는 신과 천지인 삼계 관계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삼계와 신의 관련성은 그 자체가 질서가 되고 이 질서에 의해 선천문제의 해결과 후천선경 건설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구조속에서 삼계에 유도(有道)가 세워지는 요체가 되기 때문이다.

먼저 신의 천계와의 관련은 옥경(玉京), 옥주(玉樞), 명부(冥府)등의 기구가 존재하고 이곳에서 신정(神政)과 신사(神事)가 이루어진다.(교운 2장 41절, 공사 1장 5절,행록 3장 8절) 또한 천지는 인간과 유기적 관계하에 인간을 낳고 인간은 천지의 기를 받아 지혜용력(智慧用力)하며, 「천지(天地) 망량주장(魍魎主張)」이라는 내용이 단적으로 보여주듯 천지가 일정한 신과 소정의 원리하에 함께존재한다.

한편 신과 지계(地界)와의 연관은 지계의 신들이 지역의 지방신이나 『천하자기신(天下自己神) 고부운회(古阜運回), 천하음양신(天下陰陽神) 전주운회(全州運回), 천하도통신(天下道通神) 정읍운회(井邑運回), 천하시비신(天下是非神) 순창운회(淳昌運回)』 (공사 3-39) 라는 내용처럼 어떤 지역이나 인간생활의 장속에서 인계와 관련된다.(교운 1-44,63;교법 1-42)

또 지계 지하신이 천상 묘법을 인계에 전한다(교운1-9)는 것은 천상으로부터 지하에까지 신이 관계됨을 보여준다.

인간은 신계와 밀접한 관련성하에 상제가 주재하는 신도(神道)의 틀속에서 존재한다. 이러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 인간 심신(心身)의 안(安)을 찾는

해답이 되고(高南植.1999:568-569) 이것은 경천에서 경의 궁극적 대상으로서의 상제를 규정짓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상제가 밝힌 신과 인의 유기적 관계는 이미 앞장에서 삼계중 인계를 고찰한 부분에서 설명된 바 있다.

그와 더불어 신(神)은 은혜를 갚으며(예시 22절) 인간의 윤리도덕적(倫理道德的)인 면을 판단해 심판하기도 한다.

신명은 탐내어 부당한 자리에 앉거나 일들을 편벽되게 처사하는 자들의 덜미를 쳐서 물리치나니라.(교법 1-29)

지금은 신명 시대니 삼가 힘써 닦고 죄를 짓지 말라. 새 기운이 돌아 닦칠 때에 신명들이 불칼을 들고 죄 지은 것을 밝히려 할 때에 죄 지은 자는 정신을 잃으리라.(교법 3-5)

사곡한 것은 모든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 되니라. 이제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임하여 마음에 먹줄을 겨누게 하고 사정의 감정을 번갯불에 붙이리라. 마음을 바로 잡지 못하고 사곡을 행하는 자는 지기가 내릴 때에 심장이 터지고 뼈마디가 통겨지리라.(교법 3-24)

인계와 신계의 관계는 음양 관계로 삼계에 공존하는데(교운 2-42;陰陽經) 인계 일이 신계에까지 영향을 주고(교법1-25,29;2-23) 인계 일의 결과는 신계에서 결정된 내용을 따라 인계에 구현된다.(교법 1-54,행록 3-8)

나아가 인간과 신의 관계는 더 구체적으로 마음을 매개로 작용하는 원리이다. 인간 마음에 응하는 신에 선신(善神)과 악신(惡神)이 있으니 매사에 선(善)한 것을 스승삼고 악(惡)한 것을 고치는 수심(修心)이 요구된다.(행3-44) 곧 신명계와 인간계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상추상응(相推相應)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인간계의 정황은 그대로 신명계에 반영되며 신명계의 상황은 그대로 인간세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신명계와 인간계 간의 관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나사못과 같은 관계, 즉 나선기제의 관계에 있어 상호 교통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간세계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혼란된 신명계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盧吉明.1994 改正增補版 :429-430)

이처럼 인계와 신계는 「신사가 이루어지고 인사가 이루어진다. 인사가 이

루어지고 신사가 이루어진다.(神事成而人事成 人事成而神事成)』(교운 2장 42절,陰陽經)는 내용처럼 상호 유기적이고 긴밀하다.

이상에서 살펴 본 신(神)과 삼계(三界)간의 질서는 신도의 원리가 되고 천지공사를 이루는 근본구조로 작용해 기존 상도(常道)의 회복과 후천선경 건설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신계와 인계, 신과 인간은 신도를 근원으로 하는 유기적 관계하에 공존하고 인간의 마음과 몸도 신계 신들과 긴밀한 차원이 된다. 이것은 안심과 안신의 본질과 방향성이 신계와 혈맥과 신경이 이어져 합덕(合德) 조화(調化) 상생(相生)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지전능의 권능과 최고의 신격을 가진 상제를 중심으로 여러 높은 신들이 우주의 조화정부(造化政府)를 구성하고 그 정부 조직아래 백성에 해당하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여 신명계라는 영역을 구성하고 있고, 이 신명계는 항상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계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대순종학 교재 연구회. 1998:122)

상제(上帝)는 천지공사를 행할 때마다 모든 신명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천지의 모든 일을 논의하는 조화정부(造化政府)를 결성하였다고 한다. 여기에서의 조화정부란 천지 안에 있는 모든 신명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변되게 회의를 하고 결정하며, 그것을 집행하는 우주의 원동기관(原動機關)으로서 <통일신단>의 결성을 의미하며 모든 신명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자신의 권능으로 신명들을 불러 모았다.(盧吉明.1994 改正增補版 :433)

이처럼 신도는 신을 매개로 천지인과 연계되어 상제에 의해 주재되는 질서이고, 천을 공경한다는 경천에서 천과 삼계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신이 상제에 귀속되어 상제의 천명에 의해 움직이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상제는 『나를 믿고 마음을 정직히 하는 자는 하늘도 두려워 하느니라.』(교법 2장 7절)고 하였으며 일심(一心)을 강조하여 일심을 가지는 자는 서쪽에서도 찾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진법(眞法)의 주재자로서의 상제에 대한 일심이 삼계에서 인간 안심의 근원이 되고, 인간 복록수명(福祿壽命)의 시작도 상제에 대한 일심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高南植. 1999:569)

인간의 복록은 내가 맡았으나 맡겨 줄 곳이 없어 한이로다. 이는 일심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라. 일심을 가진 자에게 지체없이 베풀어주리라.
(교법 2장 4절)

또 신조(信條)등을 근간으로 이루어지는 수도의 요점을 담고 있는 대순진리회 요람에서도 『수도는 심신(心身)을 침잠추밀(沈潛推密)하여 대월(大越)상제(上帝)의 영시(永侍)의 정신을 단전(丹田)에 연마(鍊磨)하여 영통(靈通)의 통일(統一)을 목적으로 공경(恭敬)하고 정성(精誠)을 다하는 일념(一念)을 스스로 생각하여 끊임없이 잊지않고 지성(至誠)으로 봉축(奉祝)하여야 한다.』라고 적어 신조(信條)의 시작이 신앙의 대상인 상제에 대한 안주(安住)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위 내용은 신도의 주재자(主宰者)이고 삼계대권의 주재자이며 개벽장(開闢長)이 상제임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인간 심신(心身)의 안(安)은 새질서인 신도에 따르는 것이고, 신도의 시원이 상제에 있으므로 결국 상제에 대한 성경신(誠敬信)으로 귀일(歸一)된다.(高南植. 1999 : 568-569)

이것은 경의 궁극적 대상이, 천은 물론이고 지계 인계 신계까지 삼계대권으로 관감만천(觀鑑萬天)하는 상제에게 있음을 나타낸다.

IV. 超越性的의 發顯인 三界大權

상제의 천지공사에서의 대권 행사는 삼계에 내재되어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해 이루어졌다.

본장에서는 먼저 삼계의 문제를 보고 이를해결하기위한 상제 삼계대권의 실제성을 「전경」 「권능, 제생」편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통해 경천에서 궁극적 경(敬)의 대상이 상제가 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천하일가의 세상으로의 변화속에서 선결되어야 할 것이 선천세계 문제이며 이것은 후천선경건설의 전제조건이다. 그리고 선천 질서를 혼란케한 가장 큰 요인은 상극으로 발생된 원(冤)과 물질에 지나치게 치우친 서양문명의 폐단때문이었다.(공사 1장 3절,교운 1장 9절)

선천문제는 음양과 관련되어 진단된다. 천지공사에 있어 선천 문제의 진

단은 정신과 물질이라는 음양의 불균형에서 찾을 수 있다.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이 균형을 이루고 신계와 인간계의 상도가 음양으로 조화를 이루어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인간들의 교만과 자연정복으로 인해 음으로서의 신계의 권위가 떨어졌으며 이로써 신계와 인계간의 음양조화의 상도가 무너지고 삼계가 혼란하게 된 것이다.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常道를 잃고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공사 1장 3절)

이처럼 음양이 상극임으로 인해 음양에서 파생된 오행도 역시 상호간 상극성이 존재하게 된다.

우주를 지배하는 근원적 기(氣)인 음양이 상극이고 음양과 밀접한 오행이 상극이면 음양의 원리로 지배되는 만물만상이 상극성을 배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같은 음양과 오행의 상극으로 인한 시비와 대립은 결국 원한을 만들어 냈고 맺힌 원한은 삼계의 상도를 파괴해 세상에 재화와 파탄을 일으킨 것이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선천의 다양한 문제들을 삼계대권으로서 해결하는 상제의 권능을 고찰함으로써 경의 궁극적 대상이 상제에게 귀착됨을 알아보기로 한다.

그 내용은 삼계를 통제하는 상제의 권능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천계 지계 인계대권으로 나누어 전경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그리고 천계 지계 인계에 대한 대권의 구분은 권능의 결과가 어느 계에 나타났는가보다는 소정의 목적을 이루기위해 권능이 직접적으로 용사된 계를 따라 분류하였다.

먼저 삼계대권은 천지인 삼계에 대한 상제의 권능으로 삼계대권의 용사는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상제의 신에 대한 용사는 귀신이 진리에 지극하니 천지공사를 귀신과 함께 판단한다고 한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천지공사에 신을 부르기

위해 여러 가지 부호 글 그림등이 사용되었다. 우사(雨師)라는 신을 불러 비를 내리기도 하고 각종의 신들을 때에 따라 불러 삼계공사를 처결하였다. 이것은 신이 상제의 명으로 천지인에 작용하여 소정의 일을 이루게 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1. 天界大權

먼저 삼계의 문제 속에 천에 있어서의 문제를 보면 선천에서 만물이 시비에 따라 존재하여 천의 작용도 노천(老天), 명천(明天)등의 시비(是非)가 나타나었다.

만고 역신을 해원하여 모두 屍宿로 붙여 보내리라. 만물이 다 시비가 있되 오직 성수는 시비가 없음이라. 원래 역신은 포부를 이루지 못한 자이므로 원한이 천지에 가득하였거늘 세상 사람은 도리어 그 일을 밋게 보아 흉악의 머리를 삼아 육설로 역적놈이라 명칭을 붙였나니 모든 역신은 이것을 크게 싫어하므로 만물 중에 시비가 없는 성수로 보낼 수 밖에 없나니라. 하늘도 老天과 明天의 시비가 있으며 땅도 후박의 시비가 있고 날도 수한의 시비가 있으며 바람도 순역의 시비가 있고 때도 한서의 시비가 있으나 오직 성수는 시비와 상극이 없나니라.(교법 3장 6절)

이에따라 선천 묵은 하늘은 인간세상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켰다.

묵은 하늘은 사람을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었도다. 이후에 일용 백물이 모두 찢절하여 살아 나갈 수 없게 되리니 이제 뜯어고치지 못하면 안되느니라” 하시고 사흘 동안 공사를 보셨도다. 상제께서 공사를 끝내시고 가라사대 “간신히 연명은 되어 나가게 하였으되 장정은 배를 채우지 못하여 배 고프다는 소리가 구천에 달하리라” (공사 1장 11절)

여기에서 묵은 하늘이 행한 사람을 죽이는 공사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늘 접하는 하늘이 나타내는 자연현상이며 그것은 신의 작용을 따라 일어나고 이러한 자연의 일기변화가 인간 일상생활에 재난을 일으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주지의 사실로 선천역사속에 있었던 흉수 가뭄 태풍등으로 나타난 각종 피해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며 그로 인해 야기된 인간 의식주의 궁핍, 빈곤, 기아가 만연되었다.

또한 묵은 하늘의 폐해는 자연현상만이 아니라 인위적인 선천 인세의 의식과 의례에 있어서도 오랜 세월동안 심각한 폐단을 일으킨 것으로 지적된다. 이것은 하늘의 작용이 인간에게 소정의 영향을 주는 연계성을 또한 보여준다.

세속에 전하여 내려온 모든 의식과 허례를 그르게 여겨 말씀하시길 “이는 묵은 하늘이 그르게 꾸민 것이니 장차 진법이 나리라” 하셨도다.(교법 1장 38절)

그리고 이러한 선천에 존재해온 묵은 하늘에 대해 해원을 통해 상제는 묵은 하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보은공사를 처결한다.(공사 3장 13절)

중국철학에서 천은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원천이고, 그 존재들이 존재해 가는 유일한 광장이요 귀속처이며, 모든 존재들이 협화해서 함께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실현해 가는 삶의 길의 보편적 섭리요 총체적 공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충열,1996 초판4쇄:16-17)

이러한 천의 확장된 개념으로 대순사상에서는 우주 전체를 가리키는 삼계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며, 그속에서 고대로부터 천을 외경시한 사상에서 다루어온 자연천 혹은 인격천등의 개념이 이미 천의 의미보다 큰 우주적 차원으로 정의되어 다루어진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천지인 삼계와 신계를 임의대로 주재하는 상제의 행적과도 긴밀한 관련성을 갖는 것이다.

상제의 천계대권은 주로 천계 자연현상과 관련된 권능이 중심이 된다.묵은 하늘로 대표되는 선천을 움직여온 신들의 교체와 조정을 통해 천계는 물론이고 나아가 천의 영향을 받는 인계에도 진법(眞法)을 구현하는 것이다.

천지인 삼계는 유기적으로 신과 연계되어 존재하는 관계이므로 그 작용을 단정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위의 선천 천의 문제를 해결하는 상제 권능에 대한 사례를 『천경』 「권능,제생」편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그 실제적 의미를 찾아보기로 한다. 삼계의 유기적 관계속에서 상제의 천계대권(天界大權)은

상제께서 三界의 大權을 수시수의로 행하셨느니라. 쏟아지는 큰비를 건히게 하시려면 중도들에 명하여 화로에 불덩이를 두르게도 하시고 술잔을 두르게도 하시며 말씀으로도 하시고 그 밖에 풍우,상설,뇌전을 일으

키는 천계대권을 행하실 때나 그외에서도 일정한 법이 없었도다.(공사 1장 4절)

에서 풍우, 상설, 뇌전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와 관련 천계대권은 더욱더 다양한 면으로 『전경』에 나타나고 천계에서 일어나는 제반 자연현상을 임의대로 용사하는 점이 중심이 된다. 제반의 자연현상(강우)을 임의대로 멈추거나 바꾸는 행적이 기록되어 전한다.

동리 사람들이 상제를 배알하고 오늘은 단오절이오니 學仙庵에 가서 소풍하시기를 청하거늘 상제께서 응락하시고 自賢을 데리고 가시다가 도중에서 폭우가 쏟아지려고 하는지라. 사람들이 달음박질하여 비를 피하려고 하나 상제께서 자연을 불러 “천천히 갈지어다”고 이르시고 노방에 앉으셔서 담배를 피우시고 물려오는 구름 쪽을 향하여 담배 연기를 품으셨도다. 그리고 자리를 뜨시며 천천히 걸어 학선암에 이르시니 곧 비가 억세게 내리기 시작하였도다. (권지 2장 7절)

상제께서 양지에 글을 쓰시면서 공사를 보시던 중에 김보경을 불러 “동쪽에 별이 나타났느냐 보아라” 하시니 그가 밖으로 나갔다 들어와서 “검은 구름이 가득히 하늘을 덮어서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고 아뢰니 상제께서 창문을 열고 동천을 향하여 헛기침을 하시니 구름이 흩어지고 별이 나타나는도다.(권지 2장 2절)

상제께서 와룡리 황응종의 집에 계실 때 어느날 담뱃대를 들어 태양을 향하여 돌리시면 구름이 해를 가리기도 하고 걷히기도 하여 구름을 자유 자재로 좌우하셨도다.(권지 2장 11절)

위의 내용은 비를 그치는 일이 침을 흡에 덮거나 담배연기(혹은 담뱃대)기침등으로 구름의 작용을 조정해 있게 됨을 보여준다.

하루는 원평에서 음식을 드시고 여러 사람들을 향하여 외쳐 말씀하시기를 “이제 곧 우박이 울터이니 장독 덮개를 새끼로 잘 엮어놓아라” 하시니 여러 사람은 무심히 들었으나 오직 최명옥만이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과연 두어시간 후에 큰 우박이 내려 여러 집 장독이 모두 깨어졌도다. (권지 2장 35절)

위의 내용은 천기적인 날씨의 변화를 미리 알고있는 상제의 위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권능하에 상제는 일기의 변화를 임의대로 주재하였으며 글씨

나 음식(감주:권지 1장 25절)등을 통해 일기(日氣)조절 공사가 이루어졌다.

“풍운우로상설뇌전(風雲雨露霜雪雷電)을 이루기는 쉬우나 오직 눈이 내린 뒤에 비를 내리고 비를 내린 뒤에 서리를 오게 하기는 천지의 조화로써도 어려운 법이라” 말씀하시고 다시 “내가 오늘 밤에 이와 같이 행하리라” 이르시고 글을 써서 불사르시니라. 과연 눈이 내린 뒤에 비가 오고 비가 개이자 서리가 내렸도다.(권지 1장 22절)

관직에서 곤경에 처한 관리를 눈비와 날씨조절로 민요(民擾)를 없애 구해주는 제생을 상제는 베풀었다.이 공사에는 종이에 관련된 내용의 글을 써서 소지(燒紙)시키는 방법이 쓰였다.

갑진년 十一월에 전주에 민요가 일어나서 인심이 흉흉 하니라. 이 소란 중에 상제께서 전주에 이르셨도다. 김 보경이 상제를 배알하니 상제께서 “김 병욱이 국가의 중진에 있으니 민심의 동요를 진무하여 그 천직을 다하여야 할 일이거늘 그 방책이 어떤 것인지” 하시고 궁금히 여기시니 보경이 병욱에게 이것을 전하였느니라. 병욱은 “나의 힘으로 물 꿇듯 하는 민요를 진무할 수 없으니 상제의 처분만을 바라옵니다”고 말씀드렸도다. 상제께서 보경으로부터 사정을 알아차리시고 웃으시기만 하시니라. 이날 밤에 눈비가 내리고 몹시 추워져 노영(靈營)에 모였던 민중은 내리는 눈비와 추위에 견디지 못해 해산하고 사흘동안 추위와 눈비가 계속 내리므로 민중이 다시 모이지 못하니 민요는 스스로 가라앉았다.(행록 3장 25절)

이러한 대권의 용사속에는 다음의 내용처럼 특히 홍수, 가뭄, 병충해등 자연재해로 농사에 피해를 입어 곤경에 처한 생민의 삶을 보살펴 주는 상제의 구세제민의 의지가 내재돼 있다. 천계대권에 대해 몇가지 부제를 붙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비를 조절함

일기조절에 있어 비를 내리거나 그치게하는 권능이 전경에 기록되어 있다.

상제께서 인사를 드리는 김갑칠(金甲七)에게 농사 형편을 물으시니 그는 “가뭄이 심하여 아직까지 모를 심지 못하여 민심이 매우 소란스럽나이다.”고 아뢰었도다. 상제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네가 비를 빌러 왔도다.

우사(雨師)를 너에게 붙여 보내리니 곧 돌아가되 도중에서 비가 내려도 몸을 피하지 말라”고 이르시니라. 갑철은 발병 때문에 과히 좋아하지 아니하니라. 상제께서 눈치를 차리시고 “사람을 구제함에 있어서 어찌 일각을 지체하리오” 하시고 가기를 독촉하시니라. 갑철이 서둘러 돌아가는 길에 원평에 이르러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도다. 잠깐사이에 하천이 창일하여 나무다리가 떠내려 가게 되니라. 행인들은 모두 단비라 일컬으면서 기뻐하는도다. 흠족한 비에 모두들 단숨에 모를 심었도다.(행록 4장 31절)

김명철은 태인 백암리에 사는 종도인데 산비탈에 땅을 개간하여 거름을 주고 담배를 심어 가꾸었도다. 하루는 번개가 치고 비가 세차게 퍼붓느니라. 비탈진 산전에 거름을 준 후라 억수가 내리면 거름은 물론 발두둑까지 사태가 나는 것이 상례이기에 명철이 가슴을 치며 “내 농사는 이것 뿐인데 이 억수로 버리게 되었으니 어찌 살라”고 울음을 터뜨렸도다. 상제께서 긍휼이 여겨 “내가 수재를 면케 하리니 근심 걱정하지 말지어다”고 이르시니 내리던 비가 개는지라. 명철이 산전에 뛰어 올라가 보니 다른 사람의 밭은 모두 사태가 났으나 자기 밭만은 조금도 피해가 없었도다. 명철은 새삼스럽게 상제를 공경하는 마음을 게을리 하지않았느니라.(권지 2장 16절)

상제의 명에 따르는 인간의 행위를 따라 비를 내리는 신(神)인 우사(雨師)가 응해 가뭄을 없애는 큰비가 내려 생민의 삶이 구제되기도하고 반대로 홍수의 피해를 상제의 말씀으로 극복하기도 한다.

2) 뇌성(雷聲)을 일으킴

자연현상으로서의 뇌성을 일으키는 권능을 행사한 내용이 나타난다.

상제께서 어느해 여름에 김형렬의 집에 계실 때 어느날 밤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강감찬은 벼락칼을 잇느라 육보는구나. 어디 시험하여 보리라.” 하시며 좌우 손으로 좌우 무릎을 번갈아 치시며 “좋다 좋다” 하시니 제비봉에서 번개가 일어나 수리개봉에 떨어지고 또 수리개봉에서 번개가 일어나 제비봉에 떨어지니라. 이렇게 여러번 되풀이 된 후에 “그만 하면 쓰겠다” 하시고 좌우 손을 멈추시니 번개도 따라 그치는지라. 이튿날 종도들이 제비봉과 수리개봉에 올라가서 살펴보니 번개가 떨어진 곳곳에 수십장 사이의 초목은 꺾질이 벗겨지고 타 죽어 있었도다.(권지 1장 23절)

유월 중복날 상제께서 대흥리 부근 접지리 마을에서 경석을 비롯하여

여러 종도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중복인 오늘에 뇌성이 울리지 않으면 농작물에 충재의 해가 있으리라.” 날이 저물도록 우뢰소리가 없기에 상제께서 하늘을 향하여 “어찌 생민의 재해를 이렇게도 좋아하느냐”고 꾸짖으시고 종도들에게 마른 짚 한 개만 가져오게 하시고 그것을 무명지에 맞추어 잘라서 화롯불에 꽂고 다 태우시니라. 갑자기 번개가 북쪽에서만 번쩍이니 다시 상제께서 “북쪽 사람만 살고 타곳 사람은 죽어야 옳으냐”고 하늘을 향하여 꾸짖는 듯이 소리를 치시니 사방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쳤도다. (권지 2장 17절)

상제께서 추운 겨울 어느날 창조의 집에 오셔서 벽력표를 땅에 묻으시니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천지를 진동하니라. (권지 2장 25절)

상제의 뜻을 따라 번개가 일어나고 생민의 재난을 없애는 소정의 공사가 상제의 명속에서 이루어져 번개가 일어나며 벽력표를 통해 뇌성이 발생한다.

3) 바람을 일으킴

바람을 일으키는데 있어 제갈량의 과거 예가 비유되고 바람으로 화재를 없애는 이적이 『전경』에 기록되어 전한다.

상제께서 “제갈량이 제단에서 칠일 칠야 동안 공을 드리 동남풍을 불게 하였다는 것이 우스운 일이라. 공을 드리는 동안에 일이 그릇되어 버리면 어찌하리요” 말씀하시고 곧 동남풍을 일으켜 보였도다. (권지 1장 3절)

상제께서五월에 태인 백암리로 가실 때 김경학의 집에서 불이나서 바람을 타기 시작하여 화재가 위험하게 되니라. 상제께서 “이 불을 끄지 않으면 동리가 위태로우리라”고 말씀하시고 크게 바람을 일으켜 불을 끄시니라. 경학은 바람으로써 불을 끄는 법도 있다면서 탄복하였도다. (권지 2장 15절)

바람을 자유자재로 일으키고 바람의 힘으로 화재를 없애는 상제의 권능을 찾을 수 있다.

4) 태양을 멈춤

소정의 공사를 통해 권능으로 태양을 멈추는 신이(神異)함을 행하였다.

상제께서 약방에 계시던 겨울 어느날 이른 아침에 해가 앞산 봉우리에 반쯤 떠오르는 것을 보시고 종도들에게 말씀하시니라. “이제 난국에 제하여 태양을 멈추는 권능을 갖지 못하고 어찌 세태를 안정시킬 뜻을 품으랴. 내 이제 시험하여 보리라” 하시고 담배를 물에 축여서 세 대를 연달아 피우시니 떠오르던 해가 산 머리를 솟지 못하는지라. 그리고 나서 상제께서 웃으며 담뱃대를 땅에 던지시니 그제야 멈췄던 해가 솟았다.(권지 1장 27절)

담배를 물에 축여 피움으로써 불과 물의 기운을 조정해 태양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면을 생각할 수 있다.

5) 자연에 내재된 천지신명이 상제에 응함

상제의 천지공사는 천지신명을 도수에 따라 응하게 해 소정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공우가 상제를 좇은 후로부터 순유에 자주 시종하였도다. 그는 어디서든지 머무시다가 다른 곳으로 떠나려 하실 때는 밤이면 달무리, 낮이면 햇무리가 나타나는 것을 증험하였으므로 언제든지 햇무리나 달무리만 나타나면 출입하실 줄 알고 먼저 신발과 행장을 단속하여 명을 기다리고 있노라면 반드시 불러 길을 떠나자 하셨도다. 대저 상제께서는 어디를 가시던지 미리 말씀하신 일이 없었도다.(권지 2장 4절)

상제께서 계신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실 때에는 때를 가리지 않고 반드시 구름 기둥이 洞口 좌우에 깃대와 같이 높이 뻗쳐서 여덟팔자 형을 이루는 것을 종도들이 보고 아뢰이니 “이는 將門이라” 일러주시니라.(권지 2장 13절)

천지에 가득차 있는 신들이 상제의 모든 행적에 응하여 일을 하나감을 볼 수 있다.

6) 치도령(治道領)으로 길을 다스림

치도령은 도로를 다스리는 명령이다. 신을 응하게 해 질거나 더러운 길의 상태를 다니기에 편리하게 바꾼 사례들이 기술돼 있다.

상제께서 언제나 출타하시려면 먼저 글을 써서 신명에게 治道令을 내리시니라. 상제께서 계셨던 하운동은 원래 산중이라 길이 매우 좁고 험하

고 수목이 우거져 길에 얽혀 있느니라. 치도령을 내리시면 여름에는 나무에 내린 이슬을 바람이 불어 떨어뜨리고 겨울에는 진흙 길이 얼어붙기도 하고 쌓인 눈이 녹기도 하였도다.(권지 1장 9절)

상제께서 선달 어느날 종도들과 함께 동곡으로 가시는데 길이 진흙으로 심히 험하거늘 치도령을 내리시니 질던 길이 곧 굳어지니라. 마른 짚신을 신고 동곡에 가실 수 있었도다. 그 당시 쓰신 치도령은 “御在威羅山下”의 여섯 글자인 바 상제께서 이것을 불사르셨도다.(권지 1장 12절)

상제께서 농암에 머무르시며 공사를 마치시고 그 곳을 떠나려 하실 때에 차경석이 와서 배알하고 “길이 질어서 한 걸음도 걸기 어렵나이다”고 아뢰는도다. 상제께서 양지에 “勅令道路神將 御在淳昌籠岩 移于井邑大興里”라 쓰시고 물에 담궜다가 다시 끄집어내어 손으로 짜신 후에 화룻불에 사르시니라. 이때 갑자기 큰 비가 내리다가 그치고 남풍이 불더니 이튿날 땅이 굳어지는도다. 상제께서 새 신발을 신고 경석을 앞장 세우고 정읍에 가셨도다. (권지 1장 13절)

공사에 따르는 글을 써서 소지시켜 도로의 상태가 바뀌어진다. 여기에서 질은 상태의 길을 다스리기 위해 먼저 비가 내려 길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글이 적힌 종이를 물에 적시는 것이고, 다시 젖은 종이를 화룻불에 사르는 것은 자연현상으로 남풍이 불어 길이 굳어지는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 할 수 있을 것이다.

7) 성수(星宿)의 해악(害惡)을 없앴

하늘의 줌성의 인간에 대한 피해를 말씀으로 없애는 권능이 용사된다.

한여름에 정읍의 버들리에서 젊은 여자가 범에게 물려 갔는데 이도삼이 정읍 수통목에 계시는 상제를 찾아 뵈옵고 그 일을 아뢰니라. 상제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공우에게 “하늘에 줌성이 나타났는가 보라” 하시니 공우가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나타나 있음을 아뢰니 상제께서 베고 계시던 목침으로 마룻장을 치시며 “줌성아, 어찌 무고히 사람을 해하느뇨”고 꾸짖으셨도다. 이튿날에 그 여자가 몸에 조금만한 상처만을 입고 살아 돌아왔느니라.(권지 2장 18절)

2. 地界大權

지(地)는 선천에서 천(天)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하(卑下)되었으나 천지공사

를 통해 천과 지가 대등한 위치에 있게 되며 땅 자체에도 해원으로 기운이 돌아 전체적인 균등성이 만들어 진다.

선천에는 하늘만 높이고 땅은 높이지 아니하였으되 이것은 지덕(地德)이 큰것을 모름이라. 이 뒤로는 하늘과 땅이 일체로 받아들여야 하느니라.(교법 1장 62절)

이제 해원시대를 맞이 하였으니 땅도 버림을 받던 땅에 기운이 돌아오리라.(교법 1장 67절)

다음으로 지계대권에서는 지리(地理)와 관련 지기통일등을 이루어 나가는 상제의 권능이 나타난다. 그중 지기통일 공사는 인계의 반목쟁투로 나타난 원을 없애고 나아가 삼계를 개혁해 선경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이다.

또 상제께서 가라사대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 쟁투하느니라. 이를 없애려면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혁되고 선경이 세워지리라” 하셨도다.(공사 3장 5절)

지기통일을 위해 조선을 중심으로 부모산의 정기를 뽑고 산하대운을 거두어 강산정기를 통일시키는 권능을 상제는 행하였다.

상제께서 각 처에서 정기를 뽑는 공사를 행하셨도다. 강산 정기를 뽑아 합치시려고 父母山의정기부터 공사를 보셨도다. 부모산은 전주 母岳山과 淳昌 回文山이니라. 회문산에 이십 사혈이 있고 그 중에 五仙圍碁形이 있고 碁變은 唐堯가창작하여 단주를 가르친 것이므로 단주의 해원은 오선위기로부터 대운이 열려 돌아날지니라. 다음에 네 明堂의 정기를 종합하여야 하니라. 네 명당은 淳昌回文山의 오선위기형과 務安 僧達山의 胡僧禮佛形과 長城 巽龍의 仙女織錦形과 泰仁 拜禮田의 群臣奉詔形이니라. 그리고 부안 변사에 二十四 혈이 있으니 이것은 회문산의 혈수의 상대가 되면 해변에 있어 海王의도수에 응하느니라. 회문산은 山君, 변산은 海王이니 상제께서 그 정기를 뽑으셨도다. (공사 3장 6절)

상제께서 여름 어느날에 황 응종의 집에서 산하의 대운을 거둬들이는 공사를 행하셨도다. 상제께서 밤에 이르러 백지로 고깔을 만들어 응종에게 씌우고 “자루에 든 벼를 꼬집어 내서 사방에 뿌리고 백지 백 이십장과 양지 녀장에 글을 써서 식혜 속에 넣고 인적이 없을 때를 기다려 시

궁 흙에 파묻은 후에 고깔을 쓴 그대로 세수하라”고 명하시니 그는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별안간 인당에 콩알과 같은 사마귀가 생겼도다. 옹종이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벼를 뿌린 것을 보았으나 한 알도 보이지 않고 없어졌도다.(공사 3장 7절)

이웃나라인 일본의 지기(地氣)를 뽑아 민족성을 바꾸는 공사도 단행되었다.

일본의 지기가 강렬하므로 그 민족성이 탐욕과 침략성이 강하고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을 일삼느니라. 옛적부터 우리 나라는 그들의 침해를 받아왔노라. 이제 그 지기를 뽑아야 저희의 살림이 분주하게 되어 남을 넘보는 겨를이 없으리라. 그러면 이 강산도 편하고 저희도 편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전날 신방축 공사를 보았음은 神戶와 어음이 같음을 취함이었으니 이제 신호에 큰 불이 일어난 것은 앞으로 그 지기가 뽑힐 징조이로다.(공사 3장 31절)

아래 내용에서 지리(地理)에 통해 상제가 지계공사를 처결해나감을 알수 있다.

상제께서 어느날 공우를 데리시고 태인 보림면 장자동을 지나는 길가에서 墓를 보시고 공우에게 이르시니라. “이 穴은 臥牛形이나 琴穴形이라고 불리우니라. 그것은 형명을 잘못 지어서 發蔭이 잘못 되었느니라. 어디든지 혈명을 모르거든 龍尾없이 造墳하였다가 명사에게 혈명을 지은 뒤에 용미를 달면 발음이 되나니라” 하셨도다.(행록 4장 9절)

갑진년에 김덕찬이 모친상을 입고 장례를 지내려고 전주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龍頭峙 주막에서 상제를 배알하니 가라사대 “오늘 장사는 못지 내리니. 파의하라” 하시니라. 덕찬이 이를 듣지 않고 돌아가서 장례를 그대로 행하여 지정한 땅을 파니 큰 蟻穴이니라. 다시 다른 곳을 파니 그곳도 역시 마찬가지라. 그제서야 상제께서 가르치심의 어김을 뉘우치고 부득히 土壟을 하였도다.(권지 1장 30절)

상제는 지리와 지기를 따라 땅의 정기와 혈을 도수에 맞춰 사용하였다. 비인복종혈과 금반사치혈등을 소정의 공사를 통해 뽑아 쓰는 권능이 전경에 적혀있다.

또 상제께서 양지와 백지와 장지를 각각 준비하여 놓으시고 가라사대 “비인복종(庇仁覆鍾)이 크다 하므로 복도수를 보노라. 복은 채가 있어야

하나니 수저가 북채라. 행군할 때 이 수저로 북채를 하여야 녹이 진진하여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양지와 백지와 장지를 각각 조각조각 찢으시고 조각마다 글을 써서 단지에 넣고 그 단지 입을 잘 봉하여 깨끗한 곳에 묻으셨도다.

상제께서 그 후 경석에게 “너의 선묘인 九月山 金盤死雉의 穴蔭을 옮겨와야 되리라”고 명하시고 공우에게 북을 치게 하고 말씀하시기를 “이 혈음은 반드시 長風을 받아야 발하리라” 하셨도다. 이 때 李道三의 아우 長豊이 문득 들어오거늘 공우가 북채를 잠깐 멈추고 “장풍이 오느냐”고 인사를 하는도다. 이것을 보시고 상제께서 “이제 그만 그치라”고 말씀하셨도다.(행록 3장 41절)

3. 人界大權

인계대권은 다양한 인간사의 일들에 대해 권능을 보인 것으로 크게 병, 화난등의 인간고통을 해결해주는 면과 새로운 도수로 동서양 질서와 인간사회 조직기구등을 만드는 내용으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인간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내용은 생민의 생활구제, 인사(人事)의 각종 갈등의 해소, 병으로부터의 제생등이 대표적이다.

또 새로운 질서의 확립은 무너진 상도의 회복을 통한 유도의 정착과 후천 선경의 건설로 권능이 나타난다. 아래 내용은 이와관련된 몇가지 실례를 중심으로 대권을 정리한 것이다.

1) 생민의 고통 해결

먼저 앞절에서 보았듯이 인간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면에서는 생민의 생활을 구제해주는 권능이 있다. 당시 민중들의 삶은 농사의 풍흉에 따라 희비가 달라지는 상황이었다.이에 대해 상제는 각종 일기변화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천계 대권을 통해 인계 생민의 생활을 구제해 주었다.(권지 2장 16,17절) 생민의 삶을 구제해주는 권능은 농사만이 아니라 상업에 종사하는 민중들에게도 베풀어졌다.

백남신의 친족인 백용안이 관부로부터 술도매의 경영권을 얻으므로써 전주 부중에 있는 수백개의 작은 주막이 폐지하게 되니라. 이 때 상제께

서 용두치 김주보의 주막에서 그의 처가 가슴을 치면서 “다른 벌이는 없고 겨우 술장사하여 여러 식구가 살아왔는데 이제 이것마저 폐지되니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통곡하는 울분의 소리를 듣고 가엾게 여겨 종도들에게 이르시기를 “어찌 남장군만 있으랴. 여장군도 있도다.” 하시고 종이에 여장군이라 써서 불사르시니 그 아내가 갑자기 기운을 얻고 밖으로 뛰어나가 소리를 지르는도다. 순식간에 주모들이 모여 백용안의 집을 급습하니 형세가 험악하게 되니라. 이에 당황한 나머지 그는 주모들 앞에서 사과하고 도매 주점을 폐지할 것을 약속하니 주모들이 흩어졌도다. 용안은 곧 주점을 그만 두었도다.(권지 1장 17절)

처결하고자하는 공사의 내용을 종이에 적어 소지(燒紙)시킴으로써 생민의 고통을 해결하고 새로운 문물의 유입속에 부의 편중으로 발생된 당시 사회 문제를 극복하고자한 면이 보인다.

2) 인간 수명의 관장

상제의 인간에 대한 권능은 사람의 전생을 밝히고 수명까지 연장해주었으며, 이것은 상제의 위격이 인간의 수명복록을 모두 관장하는 차원임을 보여 준다.

그후 어느날 금곡이 상제를 정중하게 시좌하더니 상제께 저의 일을 말 씀하여 주시기를 청원하였도다. 상제께서 가라사대 “그대는 전생이 月光大師인 바 그 후신으로서 대원사에 오게 되었느니라. 그대가 할 일은 이 절을 중수하는 것이고 내가 그대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리니 九十세가 넘어서 입적하리라” 하시니라.(행록 2장 13절)

한편 수명에 있어 그릇된 욕망에 빠져 상제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인간이 죽음에 처하게 되는 상제의 예견이 나타나고, 죽음과 관련 상제의 권능으로 생을 얻을 수 있었던 환자가 상제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보인다.

처음부터 永學은 도술을 배우기를 원했으나 상제께서는 그것을 원치 말고 대학을 읽으라 하셨는 데도 명을 어기고 술서를 공부하기에 詩를 보내어 깨닫게 했으나 상제의 말씀을 듣지 않더니 기어코 영학이 죽게 되었니라. 상제께서 내림하셔서 영학의 입에 엄지손가락을 대시고 “이 손가락을 떼면 곧 죽을 것이니 뜻에 있는 데로 유언하라” 하시니 영학이 부모에게 할 말을 모두 마친 후에 엄지손가락을 떼시니 곧 사망하니라.

(권지 1장 29절)

상제께서 구릿골을 떠나 益山에 이르시고 그 곳에서 월여를 보내시다가 다시 會仙洞에 이르시니라. 이 곳에 金 甫京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집 외당에 상제께서 계셨도다. 이 때 그는 모친의 위독함을 상제께 아뢰니라. 이를 들으시고 상제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오늘 밤은 冥府使者가 병실에 침입하여 나의 사자의 빈틈을 타서 환자를 해할 것이니 병실을 비우지 말고 꼭 한 사람이 방을 지키면서 밤을 새우라> 하시니라. 보경이 이르심을 좇아 가족 한 사람씩 교대로 잠자지 않고 밤을 새우기로 하고 가족들을 단속하였느니라. 여러날이 계속되매 식구들이 졸음에 못이겨 상제의 이르심을 잊어 갔도다. 이날 밤 보경이 깨어 방을 지키다가 깜박 잠에 빠졌던 바 이 때 상제께서 외당에서 급히 소리쳐 부르시니라. 그가 놀라 깨어 보니 벌써 모친은 운명하여 있었도다. 상제께서 말씀하신 나의 사자는 바로 병자를 간호하는 사람을 가리키신 것이로되 식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도다. (행록 1장 34절)

위의 내용중 아래 부분의 예문은(행록 1장 34절) 명부사자의 인간에대한 소정의 작용을 막아 인간 생명을 연장시키는 상제의 권능으로 호생의 덕을 베푸는 의미가 담겨있다.

3) 병으로부터의 제생

다음으로 병에 대한 고통으로부터의 생민구제를 위한 권능의 용사가 나타난다. 상제는 인계대권의 행사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병을 다스리는 치병을 행하였으며 만국의원(萬國醫院)공사를 통해 제병(除病)을 구현하였다. 치병(治病)의 행사는 병의 원인을 상세히 찾아내 치유하는 상제의 권능에 기인한다.

상제는 각각의 환자들에게 맞는 의법(醫法)을 베풀어 병을 치유하거나 직접 대속(代贖)을 통해 여러 질병을 없애는 권능도 용사하였다.(제생 23절)(高南植.1999:556)

제생 방법에 있어서는 개략적으로 주문(呪文)이나 글로 기운을 응하게하거나(제생 7,10,14,20절) 병의 전이(轉移)로 치병하는 것이 있다.(제생 6,24,31절) 또 음식(제생 22,35,39절),약재(37절), 심고(心告)(12절) 그리고 말씀(8절)이나 상제님의 방문(44절)등을 통해 치병이 이루어진다.(高南植.1990:308) 제

생편에 나타난 상제의 권능하에 이루어진 주요 치병사례를 정리하면 아래 내용과 같다.

< 병과 주요 제생방법 >

- 5절 산후복통 - '나를 믿고 근심을 놓으라' 는 말씀
- 7절 치질 - 시천주를 일곱 번씩 외움
- 8절 간질병 - '나를 따르라' 는 말씀
- 9절 급병으로 사망 - '미수를 시켜 우암을 불러라', 침, 미음
- 10절 체증 - 시 한수로 고침
- 11절 앓은뱅이 - '中央神將造化云吾命令'
- 14절 문동병 - 대학우경 일장을 읽음
- 20절 오한 두통 - 오한의 기운을 불입. 육십사과를 암송
- 22절 폐병 - 닭 한마리
- 23절 괴질 - '胡不犯帝王將相之家 犯無辜蒼生之家乎'의 칙령
- 25절 앓은뱅이 - 쇠고기, 참기름
- 26절 다리 부종 - 다리를 풀고 백탕을 마심
- 27절 반신불수 - 육십간지를 외우게 함
- 30절 힘줄이 끊어짐 - 위로 뛰어 보라함
- 32절 창증 -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新民 在止於至善'을 읽음
- 33절 천포창 - 상제께서 진노, 견책함
- 41절 단독 - '팔이 잘 되도록 축수하라' 고 부탁함

한편 『전경』 「제생」 편에 나타나는 치병의 예는 죽음에 처한 환자를 구원해 주는 차원에까지 이르고 있다. 나아가 동곡약방의 설치는 상제의 무한 무량한 권능으로 각종 원인으로 야기된 우주의 병을 제거해 『후천에는 사람마다 불로 불사하여 장생을 얻으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예시 80, 81절)』 라는 내용처럼 불노불사, 불로장생의 세계를 구현하는 일과 관련돼 있다.

4) 인간 내면의 통찰

상제의 권능은 인간 개개인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있는 차원으로 나타난다.

박공우가 한때 일진회의 한 간부였으나 상제를 따른 후의 어느날 가만히 일진회 사무소에 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상제께서 문득 공우에게 이르시기를 “한 몸으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그 몸이 찢어지리니 주의하라” 하시기에 공우는 놀라며 일진회와의 관계를 아주 끊고 숨기는 일을 하지 않으니라.(권지 1장 19절)

상제께서 공사를 행하실 때나 어느 곳을 정하고 머무실 때에 반드시 종도들에게 정심할 것을 이르셨도다. 방심하는 자에게 마음을 꿰뚫어 보신 듯이 일깨우고 때로는 상제께서 주무시는 틈을 타서 방심하는 자에게 마음을 통찰하신 듯이 깨우쳐 주고 방심을 거두게 하시니라.(권지 2장 22절)

다음으로 상제의 권능은 인세(人世) 미래사를 예측해 내는 경지로 표현된다.

류서구는 상제의 부친과 친분이 있는 분으로서 상제의 예지(豫智)에 크게 놀라 상제를 경송하게 되었도다. 상제께서 그의 내왕을 언제나 미리 아시고 주효를 준비한 사실을 부친이 서구에게 알렸으되 그가 믿지 않았도다. 임인년 정월 七일에 상제께서 그가 다시 오는 것을 마당에서 맞으면서 “세전에 공사가 있어 오신 것을 대접하지 못하여 부친에 대한 예가 안 되었나이다”고 말씀하시고 아우 영학으로 하여금 책력의 틈에 끼여 둔 종이 쪽지를 가져오게 하여 펼쳐 보이시니 “인일에 인간방에서 사람이 오는데 마당에서 만나게 되니 그는 꼭 류서구였도다(寅日人來寅良方 逢場必是柳瑞九)”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도다. 이에 류서구는 놀라 그후 상제를 경송하게 된 것이니라.(권지 1장 1절)

그후에 상제께서 김제 반월리 김준희의 집에 계셨을 때 전주 이동면 전룡리에 사는 이직부의 부친이 상제를 초빙하는도다. 상제께서 그 집에 옮겨 가셨는데 그집 훈장이 상제의 재주를 시험하고자 하는 것을 미리 아셨도다. 상제께서 죽대를 갖고 산을 두시며 그 동네 호구와 남녀인구의 수를 똑바로 맞추시고 “사흘 안에 한 사람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하시니라. 그와 직부가 이상히 여겨 동네 호구를 조사하니 一호 一구의 차이도 없었고 사흘 안에 한 사람이 죽었도다.(권지 1장 14절)

나아가 인간 개개인에 대한 상제 권능의 차원은 개인의 꿈을 통해 신계를

보여주거나 그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경우에 까지 이르고 있다.

상제께서 신경수의 집에서 공사를 보시고 계실 때 시좌하고 있던 원일에게 “네가 동천에 붉은 옷을 입고 구름 속에 앉은 사람에게 네 번 절한 일이 있었는데 기억이 있느냐”고 회상을 촉구하시더니 원일이 문득 깨닫고 일어나 상제께 네번 절하니 옆에 앉아있던 종도들이 까닭을 모르고 물으니라. 그는 옷깃을 다시 여미고 정중히 앉아 이야기하되 “수년 전에 갑자기 병이 들어 사경에 빠져 정신이 황홀하여지는데 어떤 사람이 사인교를 타고 가다가 나를 보고 네가 새 옷으로 갈아 입고 문밖에 나가서 동쪽하늘을 바라보면 구름속에 붉은 옷을 입은 분이 앉아 계시리니 그 분에게 절을 사배하라. 그러면 너의 병이 나으리라고 이르기에 그대로 행하였더니 병이 곧 나았다.”고 하니라.(권지 2장 28절)

종도 공우가 상제를 모시고 신경수의 집에 머물었느니라. 공우는 밤에 잠자리에서 사람 수십명이 빛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상제가 계시는 문 밖의 뜰에서 배례하느니라. 이에 놀라서 공우는 상제의 등 뒤에 숨었도다. 아침에 상제께서 꿈이야기를 물으시거늘 공우가 그대로 아뢰니 다시 가라사대 “그들이 천상벽악사자(天上霹靂使者)이니라” 하셨도다.(권지 2장 3절)

위의 내용은 꿈을 통해 상제와의 관계하에 인간의 소망이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이것은 꿈이라는 인간의 정신작용속에도 상제의 권능이 용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면은 인간의 심리적 움직임까지도 인지해 내는 상제의 위상을 나타낸 것이다.

또 구한말 혼란한 시국속에서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행로를 조정해 세태를 안정시키는 권능도 나타난다.

천도교 孫秉熙가 호남 일대를 순회하고자 전주에 내려와서 머물렀도다. 상제께서 공우에게 “네가 전주에 가서 손병희를 돌려보내고 오라. 그는 사설로 교도를 유혹하여 그 피해가 커지니 그의 순회가 옳지 않다”고 분부를 내리셨도다. 이에 그가 복명하였으되 이튿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히 여겼느니라. 며칠 후에 손병희는 예정한 순회를 중지하고 경성으로 되돌아갔도다.(권지 1장 33절)

위 내용을 통해 상제의 권능하에 공사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머물고 있는 곳에 종도를 보내 소정의 일을 이룸을 볼 수 있다.

5) 세계질서의 재편성(동, 서양 질서; 종교; 조선 상등국; 인존 도통군자)

한편 상제의 권능은 인간의 일상생활과 정신작용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세계정세와 관련된 면으로도 발현된다. 인계의 새로운 질서의 확립은 해원상생, 보은상생에 입각 과거사의 원을 풀고 세계질서에 상도를 회복해 지상천국의 세계를 구현하는 권능의 용사로 이루어진다.

이를위해 과거역사에 대한 평가와 신계 신명들에 대한 해원공사로써 삼계에 화평을 이루는 공사가 인계에 처결되는데, 이것은 조선과 일본사이에 있었던 과거사의 해결과 구한말 당시의 동서양 정세속에서 이루어진 공사이다.

지난 임진 왜란 때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성공치 못하고 도리어 세가지의 한만 맺었으니 소위 삼한당(三恨堂)이니라. 첫째로 저희들이 서울에 들어오지 못함이 一한이요, 둘째는 무고한 인명을 많이 살해되었음이 二한이요, 셋째는 모 심는 법을 가르쳤음이 三한이라. 이제 해원시대를 당하여 저들이 먼저 서울에 무난히 들어오게 됨으로써 一한이 풀리고, 다음 인명을 많이 살해하지 아니 함으로써 二한이 풀리고, 셋째로는 고한삼년(枯旱三年)으로 백지강산(白地江山)이 되어 민무추수(民無秋收)하게 됨으로써 삼한(三恨)이 풀리리라.(예시 74절)

상제께서 어느날 가라사대 “조선을 서양으로 넘기면 인종의 차별로 학대가 심하여 살아날 수가 없고 청국으로 넘겨도 그 민족이 우둔하여 뒤감당을 못할 것이라. 일본은 임진란 이후 도술 신명사이에 척이 맺혀 있으니 그들에게 일시천하통일지기(一時天下統一之氣)와 일월대명지기(日月大明之氣)를 붙여주어서 역사케 하고자 하나 한 가지 못 줄 것이 있으니 곧 仁이니라. 만일 인자까지 붙여주면 천하가 다 저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인자를 너희들에게 붙여주노니 잘 지킬지어다”고 이르시고 (공사 2장 4절)

이에 수반되는 보은공사로서 신계 차원에 연관된 조선상등국(朝鮮上等國) 공사가 처결되어 향후 새로운 질서에 따른 미래사가 정립되는 예시적 권능도 보인다.

상제께서 가라사대 “순망즉치한(唇亡則齒寒)이라 하듯이 중국이 편안하므로써 우리는 부흥하리라. 중국은 예로부터 우리의 조공을 받아 왔으므로 이제 보은신은 우리에게 쫓아와서 영원한 복록을 주리니 소중화(小中華)가 곧 대중화(大中華)가 되리라” 일러주셨도다.(공사 3장 18절)

조선과 같이 신명을 잘 대접하는 곳이 이 세상에 없도다. 신명들이 그 은혜를 갚고자 제각기 소원에 따라 부족함 없이 받들어 줄 것이므로 도인들은 천하사에만 아무 꺼리낌 없이 종사하게 되리라.(교법 3장 22절)

상제께서 매양 뱃소리를 내시기에 종도들이 그 연유를 여쭙니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를 상등국으로 만들기 위해 서양 신명을 불러와야 할지니 이제 배에 실어오는 화물표에 따라 넘어오게 됨으로 그러하노라.”고 하셨도다.(예시 29절)

이밖에 조선사회의 민심과 관련 정감을 없애고 이씨의 기운을 올리는 공사도 있게 된다.(권지 2장 29절)

서세동점(西勢東漸)의 급류속에서 동서양의 세계정세를 조정하는 공사도 상제의 권능하에 조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제 동양 형세가 위급함이 누란과 같아서 내가 붙잡지 아니하면 영원히 서양에 넘어가리라” 갇히 우려하시사 종도들에게 계묘년 여름에 “내가 日露戰爭을 붙여 일본을 도와서 러시아를 물리치리라”고 말씀하셨도다.(예시 23절)

“이제 서양사람의 세력을 물리치고 동양을 붙잡음이 옳으니 大神門을 열어 사십 구일을 한 도수로 하여 동남풍을 불러 일으켜 서양 세력을 꺾으리라.”(예시 24절)

“장차 청일 사이에 싸움이 두번 나리니 첫번에는 청국이 패하리라. 다시 일어나는 싸움은 십년이 가리니 그 끝에 일본이 쫓겨 들어가려니와胡兵이 들어 오리라. 그러나 漢江 이남은 범치 못하리라.”(예시 26절)

도법과 관련된 인계 새로운 질서는 기존 선천 도법의 정수를 뽑아 정리하고 모든 도법을 통일해 신도로써 만들어지는 질서이며 이를 따라 선불유서도(仙佛儒西道)의 종장(宗長)이 새롭게 정해져 개창(開創)된 인세의 종교 문화 질서이다.

신도로써 크고 작은 일을 다스리면 현묘불칙한 공이 이룩되나니 이것이 곧 무위화니라. 신도를 바로잡아 모든 일을 도의에 맞추어서 한량없는 선경의 운수를 정하리니 제 도수가 돌아드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중략)선, 불, 유의 법술이 다른 까닭이니라. 옛적에는 판이 좁고 일이 간단하므로 한가지만 써도 능히 광란을 바로 잡을 수 있었으되 오늘날은 동서가 교류하여 판이 넓어지고 일이 복잡하여져서 모든 법을 합하

여 쓰지않고는 혼란을 능히 바로 잡지 못하리라.(예시 61절)

선도와 불도와 유도와 서도는 세계 각 족속의 문화의 바탕이 되었나니. 이제 최수운을 선도의 종장으로, 진묵을 불교의 종장으로, 주회암을 유교의 종장으로, 이마두를 서도의 종장으로 각각 세우노라(교운 1장 65절)

이러한 도법하에 인존시대의 시운속에서 인간의 수명 복록은 물론이고 정치 사회 각종 분야에서 후천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인계대권에 따른 공사가 있게된다.

이에따라 천지 도수를 맞춰 향후 삼계 일을 관장하는 각종의 주요기구인 포정소 수명소 복록소 대학교 등이 종도의 집을 중심으로 새로이 설립된다.

상제께서 동짓달 스무 여드렛날 정읍 대흥리 차 경석의 집에 이르셔서 布政所를 정하고 공사를 행하셨도다.(교운 1장 27절)

法이란 것은 서울로부터 비롯하여 萬方に 펼쳐나가는 것이므로 서울 京字 이름 가진 사람의 기운을 써야 할지로다. 그러므로 京洙의 집에 壽命所를, 京學의 집에 대학교를, 京元의 집에 福祿所를 각각 정하노라(예시 26절)

한편 천지성공의 시운하에 서신사명(西神司命)으로 개벽을 통한 우주적 차원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인계 인간들에대한 심판속에서 인존시대 인간계 도통군자가 출현해 세상을 이끌어 가는 우주가 상제의 공사하에 전개된다.

상제께서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西神이 사명하여 만유를 제재하므로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것이 곧 개벽이니라. 만물이 가을 바람에 따라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성숙도 되는 것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신의 위엄을 떨쳐 불의를 숙청하기도 하며 혹은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복을 구하는 자와 삶을 구하는 자는 힘쓸 지어다.”라고 말씀하셨도다.(예시 30절)

상제께서 태인 도창현에 있는 우물을 가리켜 “이것이 젓(乳)샘이라.”고 하시고 “도는 장차 금강산 일만 이천의 도통군자로 창성하리라. 그러나 후천의 도통군자에는 여자가 많으리라.”하시고 “上有道昌 中有泰仁 下有

大覺”이라고 말씀하셨도다.(예시 45절)

또한 상제의 권능은 인계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속에서 공덕을 베푼 존재들에 대한 보은과 해원으로 이어져 인계 각종 겁역을 없애 인류사회의 안녕을 이루게 된다.

상제께서 하루는 종도들에게 “震默이 천상에 올라가서 온갖 묘법을 배워 내려 인세에 그것을 베풀고자 하였으나 金鳳谷에게 참혹히 죽은 후에 冤을 품고 동양의 道通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화 계발에 역사 하였나니라. 이제 그를 해원시켜 故國으로 데려와서 仙境 건설에 역사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도다.(권지 2장 37절)

이상에서 천을 포함한 삼계에대해 상제의 권능이 용사되었음을 각종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천(天)은 지고무상(至高無上)의 권위를 가진, 인간과 만물의 시원자(始原者)이며, 동시에 그것은 자체운행을 하면서 하민의 행위를 심찰하여 명령을 내리며 만물을 생성 변화시키기도 하는 주재자이다.

천은 인간과 만물의 근원자로서 사람과 만물을 주재섭리하는 인격신으로 지고무상의 권위를 가진다. 그리고 사람은 천에 의하여 생명을 부여받은 소산적 존재인 까닭에 천에 대한 절대적인 외경과 존송, 그리고 천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순복여부(順服與否)에 의하여 생사화복(生死禍福)이 결정된다.

이와같은 천과 인의 성명적 연관성을 토대로 하는 상고 경천신앙의 유가적 전승은 일차적으로는 정치적 천명사상의 탄생을 가능케 했고, 다시 그것이 천인의 성명적 연관성의 이해로 발전하면서 도덕적 천명사상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宋寅昌, 1996:78)

하늘은 인간의 삶의 의미와 그가 존재하는 주변세계를 해석하는 총체적인 상징이다. 그리고 총체적인 상징을 해석하는 신념체계로서의 천사상(天思想)은 곧 인간과 우주에 대한 총체적 신념체계로서의 우주론이나 세계관을 의미한다. 천사상은 단순히 물리적인 하늘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우주에 관한 전체적인 삶의 의미와 질서에 대한 해석체계이다. 이러한 우주론으로서의 천사상은 역사의 저 아득한 과거에서부터 하나의 완성된 형태로 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형성되어 왔다.

경외심의 대상으로서의 천은 우리말로 하늘님으로 불리어져 왔다. 하늘님으로서의 천은 거의 모든 민족의 종교사상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이러한 보편적인 하늘님을 지고신(至高神) 이라고 종교학자들은 부른다. 지고신의 의사는 오직 자연의 변화를 읽거나 천기를 탐지하거나 또는 제사를 통하여 인간이 감지할 수 있을 뿐이다. 다시말해서 지고신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인간과 의사소통을 한다. 멀리 있는 신으로서의 천은 우주규범이 인격화된 존재이다.(尹以欽,1991:166-168)

결론적으로 기존의 천과 천명에 대한 내용들은 상제의 신도와 천을 포함해 삼계로 확장된 우주 전체안에서 주재되는 천지인 삼계대권의 용사속에 귀속된 의미로 대순사상에 내재되어 있고, 신도와 삼계대권속에서 하늘을 공경한다는 경천의 궁극적 의미가 상제에게 귀착되고 있음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V. 結語

본고는 상제의 삼계대권의 권능에 입각 경천의 의미를 살펴본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우주적 차원의 도의 원리가 신도임을 설명하고 그러한 신도의 주재자가 상제라는 점과, 신과 함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신도의 원리하에 삼계대권을 직접 용사한 상제 권능의 실례를 통해 자연계와 인간계를 모두 관장하는 경의 궁극적 대상으로서의 상제의 위상을 찾아 보았다.

상제의 권능은 천계 자연현상의 주재와 지계 지기의 통일 그리고 인계질서의 재구성 및 민의 구제등 삼계 전체에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권능은 천지인 삼계에 내재되어 있는 신들을 통제 사역해 삼계를 임의대로 관령해 나가는 신도에 의해 가능한 것이고 그 신도의 정점에 상제가 위치한다.

이와같은 신도의 의미를 통해 일반적으로 자연현상으로서의 자연천(自然天), 종교적 의미로의 주재천(主宰天), 도덕적 의미로서의 의리천(義理天)의 개념이(김충열, 1996 초판 4쇄 : 18-23) 상제의 삼계대권이라는 초월성속에 내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태양, 비, 눈, 바람 등의 자연현상도 상제의 권능에 의해 주재되는 실례가 천계대권속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자연천에서 나타나는 자연현상에 신이 내재되어 있고 삼계대권으로 모든 신을 부러 인간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상제 권능의 표현이 된다.

지리(地理)의 통찰하에 지기통일을 이루는 상제의 권능은 땅의 기운을 자유자재로 뽑아 합치는 권능에서 가능한 것으로 각 지방신과 지하신을 통해 공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계는 천계, 지계의 영향하에 존재하며 인간은 각 선령신과 연계되어 살아간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도라는 새로운 도법의 질서하에 선,불,유,서도가 있고 동서양 판이 재구성되는 권능이 있게 된다.

또 사농공상(士農工商)하에 나타나는 병, 재난, 분쟁등 인간 삶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마음과 정신현상까지도 주재하는 사례들은 상제의 권능이 인간화돼 나타나는 면모를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구천의 상제가 인격화되어 자연과 인간을 권능으로 통제 관장한 많은 사례들은, 천을 공경한다는 경천에서 천(天)은 천의 관령 신의 사역 삼계의 주재위로서의 상제의 위상으로 이어지고 여기에서 경(敬)의 궁극적 지향점이 상제에게 있음을 실증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大學 中庸』 서울: 보경문화사
『書傳』 서울: 보경문화사
- 高南植(1990), 「濟生에 대한 一考察」, 『大巡會報合本輯』 제1집, 大巡眞理會 敎務部
- (1992), 「先天現實과 天地公事論」, 『大巡論集』 제1집, 大巡眞理會 敎務部
- (1997), 「典經에 나타난 神人調化」, 『大巡思想論叢』 제3집, 大巡思想學術院
- (1998), 「先後天 交替와 天地公事」, 『21세기와 大巡思想』 大巡思想學術院
- (1999), 「有道の 확립과 安의 意味-安心安身の 安과 관련하여-」, 『大巡思想論叢』 제7집, 大巡思想學術院
- 琴章泰(1993 3판), 『韓國實學思想研究』 서울: 集文堂
- 金能根(1988), 『儒敎의 天思想』 서울: 송실대학교 출판부
- 김충열(1996, 초판4쇄), 「천인관계를 둘러싼 논쟁의 기조」 『논쟁으로 보는 중국철학』, 서울: 예문서원
- 盧吉明(1994, 改正增補版), 「神과 人間의 圓한을 抹消한다」 『韓國思想의 深層』, 서울: 宇石
- 大巡眞理會 敎務部(1969), 『大巡眞理會 要覽』, 서울: 大巡眞理會 出版部
- 大巡眞理會 敎務部(1974), 『典經』, 서울: 大巡眞理會 出版部
- 大巡宗學敎材研究會(1998), 『大巡思想의 理解』, 京畿道 抱川: 大眞大學敎出版部
- 都光淳(1990), 『道交와 科學』 서울: 比峰出版社
- 商務印書館 編輯部(1989), 『辭源』, 台北: 遠流出版公司
- 宋寅昌(1996), 「先秦易學에서 天命自覺의 方法」 『周易과 韓國易學』, 서울: 범양사

- 安炳周(1987), 『儒敎의 民本思想』, 서울: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유초하(1998), 「조선유학의 하늘 개념에 담긴 관념성과 인격성」 『조선
유학의 자연철학』, 서울: 예문서원
- 尹以欽(1991), 『韓國宗敎研究(Ⅲ)』, 서울: 集文堂
- 李京源(1998), 『韓國 近代 天思想 研究』 서울: 성대 박사논문
- 諸橋徹次(1984), 『大漢和辭典』, 東京:大修館書店